학회소식

1. 정례학술발표회

1) 제107회 정례학술발표회 및 총회

일시 : 2013년 12월 27일(금) 오후 2시~6시

장소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17동 6층(서암홀)

- 제1주제 조선에서 已行과 未行의 해석
  발표자 : 김 영 석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 제2주제 조선시대 재산권과 매매계약제도에 관한 試論
  발표자 : 이 헌 창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 사료강독 帝國日本의 永小作權 관련 植民地 臺灣과 朝鮮에 대한 民事慣習調査 史料解說 -『臺灣私法』과『民事慣習回答彙集』및 朝鮮高等法院判決을 중심으로-
  발표자 : 김 백 경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2. 제6회 韓國法史學會 瀛山 法史學 學術賞 施賞式

2013년 12월 27일(금) 오후 6시에는 제6회 韓國法史學會 瀛山 法史學 學術賞 施賞式이 거행되었다. 이 상은 2008년 朴秉濠 명예회장(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께서 후학을 격려하고 학회의 발전과 법사학의 진흥과 이를 통한 법문화 창달을 위해 출연한 "韓國法史學會 瀛山 法史學 學術賞"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법사학회가 주관이 되어 2008년 10월 25일에 영산 法史學 學術賞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한국법사학회 회원과 한국고문서학회 회원 가운데 우수학술상과 신진학술상으로 나누어 수여하고, 우수학술상은 격년으로, 신진학술상은 40세 이하의 학자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회에서는 2008년에 제1회 우수학술상 및 신진학술상 각 1명을, 2009년에 신진학술상 2명을, 2010년에는 우수학술상 2명(공동)과 신진학술상 1명을, 2011년에는 신진학술상 2명, 2012년에는 우수학술상, 신진학술상 각 1명을 시상하였다. 2013년에는 규정에 따라 신진학술상 2명을 시상하기로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았다. 그리하여 신진학술상 중 법사학분야에 3편, 고문서학분야에 등 모두 6편의 논문이 추천되었으며, 심사위원회에서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공고한 바와 같이 각각 신진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수상논문 및 수상자, 선정이유와 수상자 소감은 다음과 같다.

신진학술상(법사학분야) : 근대 초기 한국의 민법학 수용과 판사에 대한 영향
－1900~1910년대 이혼법을 중심으로－(법사학연구 제46호 2012.10)
수상자 : 吉川絢子(일본 京都大學 大學院 文學硏究科)

선정이유

위 논문은 1894년 이후 한국과 일본의 법학 교류를 일본에 유학한 조선인 법률가들의 활동양상을 통하여 분석한 것이다. 1895년 관비유학생으로 일본에 유학을 간 조선인들이 일본에서 학습한 구체적인 법률과목을 사료를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이들이 귀국한 후에 한국에서 활동한 내용을 소개하여 일본법이 조선에 이식되는 과정을 그려내었다. 1907년 재판소구성법의 시행으로 사법과 행정이 분리됨에 따라 판사들의 대부분은 일본법학을 경험한 자들로 충원되었으며, 이들은 각종 일본 법률문헌들을 번역하는 등 소개하였으며 또한 일본인 법률가와 함께 재판에 종사하였다. 1910년대 여성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수리되는 배경을 이러한 학문적 경향에서 찾아내었다. 위 논문은 주제의 설정이 기존의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참신한 것이며 또한 1차 자료에 대한 천착이 돋보일 뿐만 아니라 자료의 정리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신진연구자로서의 패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다른 연구자의 귀감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수상논문으로 선정하였다.

수상자 소감

먼저 제 논문을 평가해 주시어 영산학술상 수상자로 추천해 주신 한국법사학회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아 법사학 연구자로서 큰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쁨보다 책임을 더 크게 느낍니다. 이번에 수상한 “근대 초기 한국의 민법학 수용과 판사에 대한 영향”은 그동안 법사학 분야에서는 그리 주목을 받지 못했던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 내용을 정리한 글인데, 이러한 새로운 자료 발굴과 자료 검토 과정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과대학에서 학문적 훈련을 받은 저는 그동안 자료 발굴의 필요성과 엄밀한 자료 검토의 중요성을 늘 들어왔으며 저 스스로도 그것이야말로 역사학 전공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역할이라 믿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수상은 저에게 큰 책임을 느끼게 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이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제 논문을 평가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제 수상 소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학술상(고문서학분야) : 여말선초 紅牌・白牌 양식의 변화와 의의(고문서연구 제40호 2012.2)
수상자 : 朴成鎬(京都大學 人文科學硏究所)

선정이유

경국대전에서는 문무과합격자에게 홍패를, 생원・진사시 합격자에게는 백패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논문에서는 고려 말에서 경국대전 체제가 성립되기 전의 홍패와 백패의 발급제도와 문서양식의 변화를 실물을 토대로 규명하였다. 『경국대전』에 조선 특유의 문서 양식이 제정되기 이전에 고려 말의 문서 양식과 명의 양식을 어떻게 조선의 문서 양식으로 변화 수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그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바로 이 시기의 문서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 변화와 수용 과정을 밝혀 커다란 성과를 얻고 있다. 연구대상 시기의 현존하는 홍패와 백패를 모두 확인하여 문서양식의 변화는 물론 이것이 제도로 정착되는 과정을 치밀하게 복원하였다. 수상자는 여말선초의 공문서 가운데 왕명문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경국대전의 문서양식이 정착되는 과정에 천착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시야를 몽고와 중국 및 일본 등 동아시아 고문서학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연구자는 고문서학 전공자로, 고문서의 양식상의 세밀한 점을 미세하게 분석하여 양식의 변화와 그 제도적 정착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한 주제에 천착하는 점, 비교사적 시각을 높이 평가하여 신진상 후보로 선정하였다.

수상자 소감

먼저 제6회 영산법사학학술상 신진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조선초기 왕명문서 연구”라는 주제로 2012년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동안 연구한 분야는 주로 여

말선초의 고문서에 관한 연구로서 구체적으로는 당시의 원본 敎書, 告身, 朝謝文書, 紅牌, 白牌, 賜牌, 祿牌에 관한 문서제도 및 문서양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금번 수상 대상 논문인 "여말선초 홍패 백패 양식의 변화와 의의"에서는 고려말의 '王命准賜' 양식의 홍패로부터 조선초기 '王旨', '敎旨' 양식의 홍패로의 변화와 그 속에 담긴 제도사적 의의를 밝혔습니다. 즉 고려말의 '왕명준사' 양식의 홍패는 관사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하는 양식이었고, 조선초의 '왕지', '교지' 양식의 홍패는 奉敎 형식이 아닌 왕명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양식으로서 고려말에 비해 문서의 위상을 한층 격상시킴으로써 국왕의 인재 선발권을 명시적으로 나타낸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패와는 달리 조선초기 백패 제도의 기원을 1438년(세종 20) 이후로 비정하였습니다.

아직 저의 연구는 원본 문서를 토대로 한 전존현황 조사, 한국사 내에서의 문서 제도의 근원 및 양식 변화에 관한 고찰에 머물러 있습니다. 향후 한국 고문서에 영향을 끼친 중국 문서제도 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고찰이 이루어져야 하며, 문서 제도와 더불어 큰 틀에서의 국가제도 및 사회 변화상 등에 대한 깊은 안목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부족한 제가 이렇게 한국 고문서학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눈을 밝혀주신 영산 박병호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학위과정 내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전경목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 상의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한국법사학회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연구에 정진하겠습니다.

3. 예정된 학술대회 소식

제40회 독일 법사학자 대회(40. Deutscher Rechtshistorikertag: http://www.jura.uni-tuebingen.de/forschung/rht)가 독일 튀빙겐에서 2014년 9월 7일(일요일)에서 9월 11일(목요일)까지 개최된다.

제40회 독일 법사학자 대회 공식 프로그램 표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매일 일반강연과 분과발표 두 종류의 행사가 열린다. 그 외에도 9월 7일 일요일 개회식 전에는 신진학자들을 위한 '젊은 법사학' 포럼이 예정되어 있다.

일반강연은 Ryuichi Noda (Fukuoka)의 강연 "Zum Städelschen Beerbungsfall" 외 여섯 강연이, 분과는 「Law and Economics im Altertum?」 외 11개의 분과에서 각각의 주제들이 다루어진다(자세한 사항은 위 인터넷 주소를 통하여 확인 가능).

그 외에도 번외 프로그램으로 월요일 저녁에는 튀빙겐의 명물 튀빙겐 대성당(Stiftskirche)을 둘러보는 가이드 여행과 파이프오르간 콘서트, 화요일 저녁에는 튀빙겐 시장 주재의 환영 파티, 목요일에는 인근 헤킹겐의 호엔촐레른 要塞城과 하이걸로흐 지하 원자력박물관(Atomkeller-Museum)으로의 답사 여행 등이 마련되었다.

4. 회원동정

1) 최병조 회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2014년 4월 11일에서 4월 12일에 걸쳐 독일 괴팅겐에서 있었던 오코 베렌츠 교수(Prof. Dr. Dr.h.c. Okko Behrends)의 75세 생신 기념 학술행사에 참석하고 괴팅겐 학술원(Die Akademie der Wissenschaften zu Göttingen)을 방문하였다.

2) 김대홍 회원은 2014년 3월 4일자로 사법정책연구원 전문직연구위원으

로 임용되었다. 사법부의 중장기적인 정책과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에 사법정책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 법원조직법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설치되어 2014년 3월 10일 출범하였다.

3) 안종철 회원은 21014년 4월 1일 자로 독일 튀빙겐대학교 중국/한국학과 Junior Professor에 부임하였다. 앞으로의 연구 계획으로서 그는 점령지 법제사를 주제로 삼되 특히 독일 미군정과 한국 미군정 등을 비교 연구할 것임을 포부로 밝혔다.

5. 운영위원회

회장	최병조(서울대)
부회장	심희기(연세대, 편집위원장)
감사	윤대성(창원대 명예교수), 이은영(한국외국어대)
총무	서을오(이화여대)
연구	한상돈(아주대), 정병호(서울시립대)
정보	조지만(아주대)
편집	문준영(부산대), 성중모(서울시립대)
섭외	김창록(경북대)
편집위원	임대희(경북대), 이재룡(충북대), 이영록(조선대), 임상혁(숭실대), 문준영(부산대), 조지만(아주대), Marie Seong-Hak Kim(St. Cloud State Univ.), 성중모(서울시립대)

6. 학회비

비정규직 연구자(대학원생 포함): 3만원

정규직: 5만원

기관: 7만원

입금계좌: 농협 351-0047-0326-53(예금주: 한국법사학회)